

천예록》·《조선의 신선과 귀신이야기》의 차이가 됐다.

《교감 역주 천예록》은 아닌 게 아니라 기이하고, 흔치 않은 소재만으로도 충분히 눈길을 끌 만한 책이다. 조선시대 민간의 기담(奇談) 62편을 채록한 것으로서 당대의 시류와 정서를 직·간접적으로 접할 수 있게 한다. 《교감 역주 천예록》을 얘기하자면, 역시 엇비슷한 문맥의 이야기와 민화·사진들을 선보이는 《조선의 신선과 귀신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다. 책을 펴낸成大출판부가 내건 슬로건마냥 '학술서의 대중화, 대중의 엘리트화'를 기대해도

좋을 만한 책이다. 두 권 모두 비평가들로부터 문학적 사료로서 값어치를 높이 평가받고 있다. 역사 정환국 선생 또한 “옛시절 작품답지 않게 문학적”이라고 했다. <출판저널>과의 인터뷰를 통해 그는 “옛날 이야기가 흔히 그러하듯, 단순히 귀신한테 홀렸다는 걸로 결말짓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며 “귀신에게 홀리게 된 과정은 어떤지, 그 이후엔 어떻게 되었는지 등을 탄탄한 구조로 보여주고 있으며, 정제된 육하원칙으로 돼 있다는 점에서 문학성이 뛰어난 글”이라고 번역에 임한 소감을 밝혔다. [출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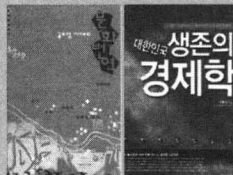
## 후보도서

《글로벌시대의 문화번역》 김현미 지음 | 또하나의문화 | 288쪽 | 값 12,000원

급변하는 일상의 경험을 글로벌리즘과 연결해 설명할 수 있는 실천적 개념을 문화 번역에서 찾으며 우리 시대의 여러 가지 문화코드에 대한 접근을 시도한다. 글로벌라이제이션을 다양성과 문화번역 개념으로 사유하고, 글로벌 자본과 노동의 경험이 일어나는 글로벌 현장을 살펴보는 등의 학문적 행위를 통해 현대 한국의 여러 가지 코드와 상징성의 문제들이 사회 일반 문제와 어떻게 연관되고 해석되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대한민국 생존의 경제학》 최용식 지음 | 리더스북 | 432쪽 | 값 20,000원

대한민국 생존의 경제학은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국내 최고의 경제논객으로 활동중인 21세기경제학연구소의 최용식 소장이 지난 40년간 연구해 온 경제연구의 성과물이다. 끊임없이 현 경제학의 문제점을 들여다보고 그 대안적 방법을 모색해 왔던 최용식 소장이 다이나믹 경제학을 통해 드디어 해법을 찾아낸 책이다.



《비단길 보고서》 서울대 문리과대학 산악회 지음 | mind media(수류산방중심) | 336쪽 | 값 18,500원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산악회의 창립 50주년을 맞아 떠난 비단길 탐사에 대한 탐사 보고서다. 모두 3장으로 돼있으며, 제1장 '탐사 준비'는 2003년 처음 이 여행으로 발의했던 때부터 여행의 준비과정부터의 이야기, 제2장 '비단길로 떠나다'는 출발 이후의 보고 듣고 겪은 구체적인 내용이다. 제3장 '탐사 보고'는 출발 전 분담했던 주제에 대한 기록으로 현장의 체험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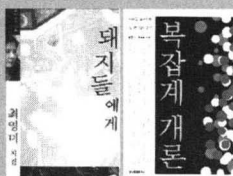
《여자의 탄생》 나임윤경 지음 | 웅진지식하우스 | 270쪽 | 값 11,000원

여성의 정체성 형성 과정을 흥미롭게 파헤치는 책. 대한민국에서 딸들은 어떻게 '여자'라는 여자'로 만들어지는지, 대한민국에서 여자들은 왜 '남자들은 하지 않는' 고민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에 치열하게 질문하고 있다. 딸에서 이준마가 되기까지, 심리학 실험, 개인적 체험, 다양한 매체에서 드러나는 여성의 이미지 등을 중심으로 한국 여자의 탄생 과정을 살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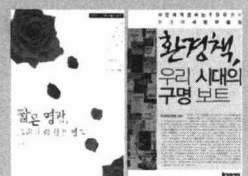
《돼지들에게》 최영미 지음 | 실천문학사 | 102쪽 | 값 8,000원

《서른, 잔치는 끝났다》의 최영미 시인이 7년 만에 내놓은 신작 시집. 기존 시집과 비교해 주목할 만한 특징은 육체와 영혼에 대한 시인 특유의 정열적인 탐구가 풍자의 형식으로 완성됐다는 것이다. 날카로운 풍자와 서정적인 감성, 그리고 세련된 농담으로 다채롭게 변주되는 시들은 한 편의 황홀한 교향악처럼 우리를 매혹시키며 위선적인 한국사회를 공격한다.



《짧은 영광, 그래서 더 슬픈 영혼》 전원경 지음 | 시공아트 | 322쪽 | 값 13,000원

요절한 11인의 예술가 이야기. 낯다른 재능을 발휘하다 일찍이 피멸에 이른 요절 예술가들의 극적인 삶과 예술세계를 살펴보는 책이다. 29세에 정신병으로 은퇴해 30년간을 혼돈 속에서 살다간 '발레의 신' 비슬라브 니진스키, 투신자살한 배우 장국영 등이 그들이다. 인생의 덧없음, 운명의 이름 등 철학적 물음을 새삼 던져보게 한다.



《복잡계 개론》 윤영수·채승병 지음 | 삼성경제연구소 | 546쪽 | 값 25,000원

복잡계란 말 그대로 복잡한 시스템을 의미한다. 이 책에서 말하는 복잡계란 단순히 추상적이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이는 겉모습 뒤에 숨어 있는 공통된 질서의 참발(本質)을 의미한다. 이 책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지나쳐왔던 자연과 사회경제계의 여러 현상들도 이러한 복잡성이 도처에 숨어 있음을 보여주면서, 복잡계와 복잡성의 의미, 복잡계의 이론 및 배경, 그리고 현실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와 그 한계에 대해 소개한다.

《환경책, 우리 시대의 구명 보트》

최성각·박병상·장성익 외 12인 지음 | (사)환경과생명

《환경책, 바로 보면 바로 자란다》 김정숙·이수중 지음 | (사)환경과생명

두 책은 환경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내서, 비평서다. 그중 《환경책, 우리 시대의 구명 보트》는 많은 사람들이 좋은 환경책에 대한 깊이 있는 안목과 충실한 정보를 얻는데 도움이 되는 환경 독서의 길잡이 혹은 나침반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기획된 것이다. 《환경책, 바로 보면 바로 자란다》는 두 현직 교사 가운데 고등학생을 비롯한 청소년에게 꼭 권하고 싶은 30권의 환경책에 대한 모든 정보를 엮어 집필했다.